

베르테르와 미시마유키

- 구영회 / 2003. 8. 13 -

카피라이터, 대보기획 제작본부/상무, 전 제일기획 금강기획 제작국장

베르테르와 미시마유키오, 그리고 고흐와 헤밍웨이, 히틀러와 롬멜 등 이런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자존심 강한 화가였던 고흐, 그리고 노인과 바다로 유명한 작가 헤밍웨이, 2차 세계 대전을 일으켰던 히틀러와 전쟁 당시 사막의 여우라 불리며 명성을 날리던 롬멜, 그들은 모두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포기했던 사람들로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괴테의 문명을 드높인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서 젊은 베르테르는 실연의 아픔과 시대의 단절감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 몸에 권총을 쏘아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영향을 받아 세계 여러나라의 젊은이들이 이를 흉내내어 스스로에게 권총을 쏘는 일들이 뒤따랐다고 합니다.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주장하며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사건을 일으키고 스스로 사무라이 처럼 활복을 한 유명작가 미시마유키오는 한 때, 일본 청년들의 우상처럼 알려지기도 했고 그를 따라 같은 수법의 자살을 한 청년들이 뒤를 이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살도 유행을 타는 것일까요?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생활고를 비관한 소위 생계형 자살로부터 성적 비관, 여고생의 혼전임신 비관, 그리고 재벌 총수의 자살에 이르기까지 자살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의 자살도 그렇고 심지어 옛 애인에게 자살의 시범을 보여 달라고 해 한강 다리에서 뛰어내리는 자세의 시범을 본 뒤 곧바로 강으로 몸을 던진 일에 이르고 보면 참 할 말을 잃게 됩니다.

당사자의 고통이 오죽이나 컸으면 그런 방법을 택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론 그 방법밖에 없었을까 하는 안타까움을 누구나 얘기하곤 합니다.

작년 한 해에 1만 3천명, 하루 평균 36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사회적 책임론이 고개를 들면서, 우리 사회에 만연된 경쟁심리와 보복의 심리, 무책임과 탐욕이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주범이라는 것입니다.

이웃보다는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이 서로서로를 단절시키고 극도의 이기주의가 배려와 관심의 자리를 대신 차지해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불러일으키고 이것이 삶을 포기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과연 사람이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생명은 인간이 품고 있지만 생명의 주인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래서 인간은 그 생명을 유지하고 관리할 청지기적 책임만 있을 뿐이라는 말씀을 되새기게 됩니다.

사람들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는, 하늘의 선물인 생명을 마찬가지로 스스로 끊을 수도 없음을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요?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고 다독거리며 치유해야 하는 책임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사회의 문제라는, 그 이야기가 더더욱 많은 사람들의 책임감으로 확산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건강한 크리스천 전문사역자들의 정직하고 명쾌한 삶의 지혜! - 「온누리칼럼」 제공